

##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

김택성<sup>†</sup>

국산초등학교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분노표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을 알아보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분노표출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초등학생 4~6학년에게 분노유발사건, 특성분노,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분노표출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4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분노표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특성분노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분노유발사건과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의 순서였으며 전체 설명력은 55.7%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몇 가지 모형을 가정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유발사건을 접할 때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이 매개작용하여 직접적으로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특성분노가 인지적 평가자원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간접적으로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부분매개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분노유발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반응하고 아동 자신의 특성분노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분노유발사건, 분노표출, 특성분노, 인지적 평가자원,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택성, 국산초등학교, 경남 거제시 옥포동 919번지  
Tel : 055-681-0542, E-mail : 01-ts@hanmail.net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기쁨, 성취감, 분노, 불안, 우울, 수치심 등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인간이 상황에 맞게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다. 이러한 감정 경험은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이 나타내는 감정 또는 정서에서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분노’로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이라고 정의된다. 분노는 유기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내는 기본적인 정서반응 중 하나이고, 개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이다(Gaylin, 1984). 또한 분노는 개인의 욕구가 방해 받을 때 나타나는 불쾌감을 제거하려는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이고 개인으로 하여금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고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적응행동으로 볼 수 있다(강신덕, 1997). 이와 같이 분노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분노의 감정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출되거나 과도하게 표출될 때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부적응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에서 주요한 단계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적인 특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Huesmann 등, 1984) 그 이후의 공격성 수준과 다른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언하는 요인으로 보고한다(Loeber, 1990). 그러므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적 행동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공격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등학생의 분노표출 원인과 분노표출 과정의 연구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하였다. 또한 분노는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이지만 분노 경향성에는 분명한 개인차가 있고 분노를 경험하는 것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분노경험은 생리적인 반응과 더불어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인데 반해, 분노표현은 그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이라는 행동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희경, 2005). 즉 유사한 분노유발사건을 경험할 경우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억제하거나 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표출하기도 한다. 분노표현은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조절(anger-control)로 구분하는데(Spielberger, 1988) 분노가 외현적으로 표출될 때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분노표현방식 중의 하나인 분노표출에 국한시켜 연구하였다.

분노는 분노유발사건 자체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체계에 의해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유발되며 분노유발과정에서 인지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Novaco, 1986). Lazarus(1991)는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고유한 인지평가 과정이 있으며 Averill (1982)도 분노가 언어적, 신체적 공격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지적 과정이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Feindler & Ecton (1986)은 분노를 분노유발사건에 대한 정서적인 스트레스 반작용으로 정의하는데 Garnefski (2001)는 스트레스 및 부정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인지적 전략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정에서 인지 변인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평가자원의 역할을 이해하기에 앞서 분노를 스트레스와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심리적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지적 평가를 하고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되고 적응, 부적응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지적 평가는 어떤 생활사건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위협적인지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일차적 평가와 일차적 평가의 결과 어떤 사건이 스트레스라고 평가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자원과 대처방법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차적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대처자원으로는 신체적 자원과 자아존중감, 문제해결기술 등과 같은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인지적 평가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스트

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노유발사건을 하나의 특수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개념화 할 수 있고 분노유발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평가자원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영인(1994)은 원호택(1998)의 스트레스 대처 모형과 Lazarus의 스트레스 이론 등을 바탕으로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는 분노유발사건에 노출될 때 비합리적 신념, 특정한 종류의 사고와 같은 개인의 인지체계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분노유발사건은 특수한 스트레스 사건이고 분노표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과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본 연구에서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도 인지적 평가에 대한 그 평가자원이 어떤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노표출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인지적 평가자원으로는 비합리적 신념을 들 수 있다. Ellis(1962)는 인지치료에서 비합리적 신념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정서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지적 오류 때문에 정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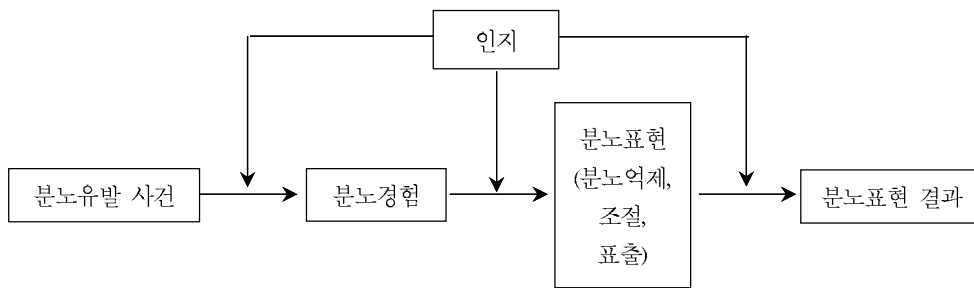


그림 1. 분노의 심리적 과정

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Novaco(1975)도 분노유발요인에 대한 강한 정서반응은 생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도 포함한다고 보고 분노표출에 있어서도 비합리적 신념의 역할을 가정하였다. 즉 화를 쉽게 잘 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 생활사건을 분노유발사건으로 잘못 평가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신념의 수준이 높다(서지영, 1996)는 것이다. 채유경(2001)은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표출에 경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오류가 높을수록 비행과 공격성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이 나타날 경향성이 높다(한태희, 2004)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를 표출할 경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지적 평가자원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적 요소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적 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불만족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기술하는데 Anderson(1994)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행동을 유발한다고 하고 서수균(2007)도 자기애를 통제한 자존감은 낮을수록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동시에 분노를 많이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청소년 전기에는 자기 비하가 분노표출과 관련이 많고(김소야자, 199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김현경, 2007; 한향정, 2008).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를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

이다.

그리고 분노표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성분노는 분노표출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pielberg 등(1983)은 분노를 상대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하였다. 상대분노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또는 흥분을 수반하는 일시적 정서상태인 반면에 특성분노는 상대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잠재된 분노경향성을 의미한다.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사건들을 분노유발사건으로 지각해서 상대분노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경희(2001)와 서지영(1996)은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다. 이는 특성분노의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를 표출할 경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영인, 1994; Deffenbacher et al., 1996).

서수균과 권석만(2006)은 특성분노와 비합리적 신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김유신과 고영인(1996)은 비합리적 신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완벽성, 인정의 욕구, 비난 경향성, 과잉 불안염려, 문제회피, 무기력이 특성분노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므로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성분노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의미있는 부적 상관이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전인자, 2002)고 보고하므로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분노와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인지적 평가자원의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 특성분노, 인지적 평가자원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지 검토해 보고 분노유발사건을 경험할 때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을 매개로 하여 분노표출을 하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노유발사건, 분노표출, 특성분노, 인지적 평가자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 고영인(1994)의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을 근거로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이 매개하

여 분노표출로 이어지는 그림 2와 같은 분노표출모형 I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성분노가 인지적 평가자원에 영향을 미쳐 분노표출로 나타나는 모형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분노표출모형 II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분노유발사건 자체가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도 확인해 보고자 하여 그림 4와 같은 분노표출모형 III을 설정하였고 설정한 분노표출모형들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수정모형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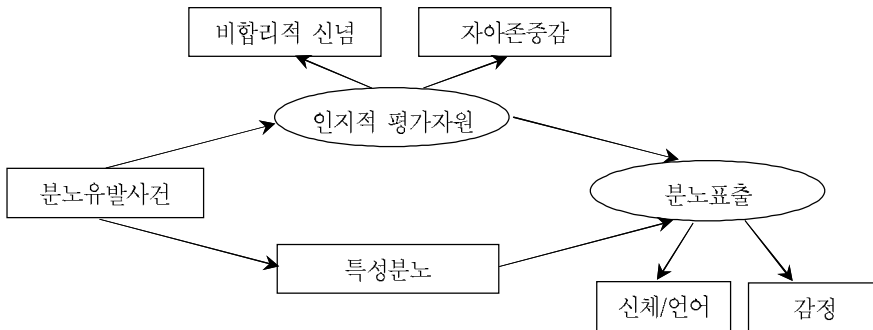


그림 2. 분노표출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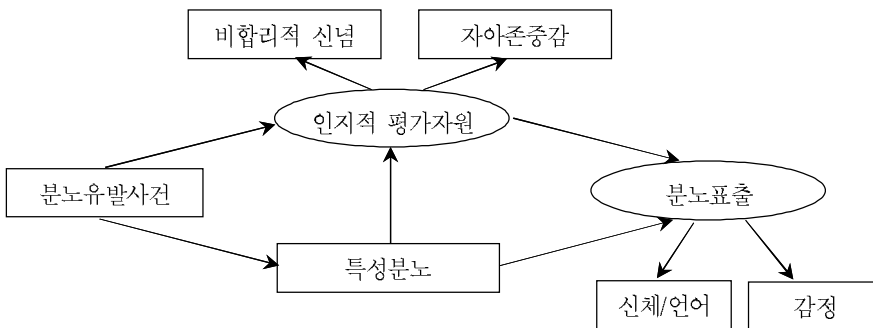


그림 3. 분노표출모형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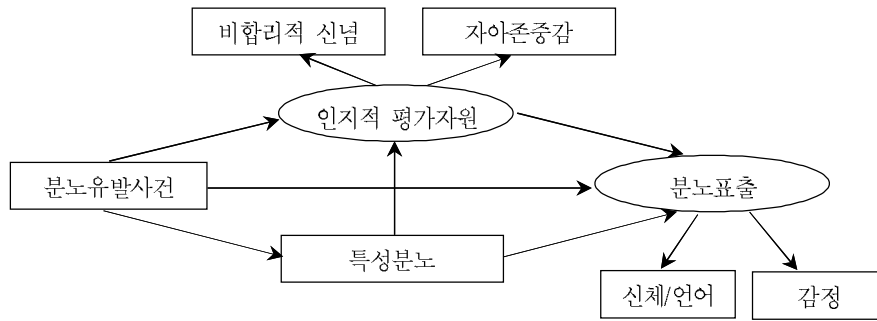


그림 4. 분노표출모형 Ⅲ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 2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아동 510명을 대상으로 5개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개별 문항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시하거나 누락시킨 문항수가 각각의 검사지 문항수의 5%이상이거나 한 가지 수준에 고정시켜 반응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를 포함한 68부를 제외한 총 4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4학년 152명(여학생 79명), 5학년 115명(여학생 62명), 6학년 175명(여학생 78명)이었고, 평균나이는 각 9.83세, 10.74세, 11.78세이었다. 그리고 전체 442명의 평균나이는 10.84세(SD= .94)이었다.

**측정도구**

**분노유발사건 검사지**

이미경(2006)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분노유발상황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45문항으로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유발사건을 경험한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의 내용은 그대로 사용되 화난 정도가 아닌 분노유발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성분분석, 베리맥스 회전하였다. 요인이 3개로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은 가족관련 분노유발사건, 요인 2는 또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된 분노유발사건, 요인 3은 또래관계에서 상대방 친구의 잘못으로 인한 분노유발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었고 전체 4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82, 요인 2는 .82, 요인 3은 .80이었다.

**특성분노 검사지**

Spielberger 등(1985)이 제작한 분노검사를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에 맞게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래의 검사는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통제, 분노억압, 분노표출의 5가지 하위 유목의 검사였지만 연구의 목적에 맞게 특성분노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4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분해법, 프로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 1은 특성분노기질, 요인 2는 특성분노반응이었고 전체 1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74, 요인 2는 .71이었다.

### 비합리적 신념 검사지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강명희(1999)가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0 문항을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분해법, 프로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 하였다.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1은 과잉염려 신념, 요인 2는 과도한 자기기대 신념, 요인 3은 과도한 자기 당위적 신념, 요인 4는 이분법적 신념, 요인 5는 과잉의존 신념, 요인 6은 완벽주의 및 문제회피 신념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전체 내적 합치도는 .92이었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82, 요인 2는 .83, 요인 3은 .81, 요인 4는 .68, 요인 5는 .66, 요인 6은 .50이었다.

### 자아존중감 검사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자존감검사(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번역한 것을 이용하였다. 총 25문항을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집된 442명의 자료를 사용해서 전체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후 각 문항 간 상관과 문항-총점 간 상관, 특정 문항을 제외한 전체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 5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20 문항에 대한 전체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분해법, 프로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하여 3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가족 관계, 요인 2는 자기비하, 요인 3은 대인 관계로 명명할 수 있었고 전체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83, 요인 2는 .74, 요인 3은 .66이었다.

### 분노표출 검사지

Spielberger 등(1985)이 제작한 분노검사를 김백영(1997)이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래의 검사는 특성분노, 상태분노, 분노통제, 분노억압, 분노표출의 5가지 하위 유목의 검사였지만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노표출 8문항을 사용하였고 박진아(2001)가 개정 보완한 이동용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중 공격적 행동과 감정을 의미하는 공격대처 5문항을 합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4점 평정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많이 표출한다는 것이다. 전체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분해법, 프로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하여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요인 형태계수가 요인들 간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추출된 요인 1은 신체/언어, 요인 2는 감정으로 명명할 수 있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은 .79, 요인 2는 .70이었다.

### 자료처리와 분석

본 연구는 아동의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노유발사건과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특성분노 및 분노표출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후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노표출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노표출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예언변인을 추출하여 분노표출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설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도 지수는 AMOS 4.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매개경로에 관하여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모형의 오류를 비교하는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오류가 작고,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NNFI(Non-Normed Fit Index),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되고 이용되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자유도와  $\chi^2$ 값의 차이를 근거로 모형 비교를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CFI가 0.9이상, NNFI가 0.9이상이면 좋은 모형이고, RMSEA는 0.05이하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기준(홍세희, 2000)에 근거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통하여 z점수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을 매개하는 변인 간의 상관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시킨 변인들의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노표출은 특성분노( $r(440) = .714, p < .01$ ), 분노유발사건( $r(440) = .486, p < .01$ ), 비합리적 신념( $r(436) = .540, p < .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r(437) = -.436, p < .01$ )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 분노표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회귀분석

특성분노,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변인 중 초등학생의 분노표출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특성분노( $F=431.584, p < .001$ )가 초등학생의 분노표출을 50.0%로 가장 높게 설명하는 변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순이었고, 이 4

표 1.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을 매개하는 변인 간의 상관

	특성분노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분노표출	.714**	.486**	.540**	-.436**
특성분노		.453**	.558**	-.421**
분노유발사건			.463**	-.493**
비합리적 신념				-.389**

\*\*p<.01



표 2. 분노표출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Beta	t	R <sup>2</sup>	ΔR <sup>2</sup>	F
1	특성분노	.707	20.775***	.500	.500	431.584***
2	특성분노	.612	16.631***	.536	.036	248.465***
	분노유발사건	.212	5.758***			
3	특성분노	.544	13.517***	.551	.015	175.819***
	분노유발사건	.170	4.486***			
	비합리적 신념	.156	3.834***			
4	특성분노	.527	12.933***	.557	.006	134.688***
	분노유발사건	.137	3.412**			
	비합리적 신념	.146	3.588***			
	자아존중감	-.091	-2.370*			

\*  $p < .05$  \*\*  $p < .01$  \*\*\*  $p < .001$

가지 변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55.7%이었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동의 특성분노가 높고 분노유발사건을 많이 접할수록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변인 간 상관패턴과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분노유발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의 몇 가지 분노표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 분노표출모형의 검증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

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몇 가지 분노표출모형을 나타낸 그림에서 화살표 위의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이고, 측정변인은 사각형, 이론변인은 타원으로 표시하였다.

표 3에서 모형 I은  $\chi^2$ 값이 높고  $p$ 값(유의도)이 .000으로 .05이하이므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CFI 값이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하이고, NNEFI 값이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하이며, RMSEA 값이 .10이상으로 나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다. 모형 II는 모형 I에 특성분노에서 인지적 평가자원으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것으로 모형 I에 비해 모형 II는 자유도가 1감소하였으나  $\chi^2$ 값이 유의도 .05수준에서의  $\chi^2$ 값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한 99.676(115.631-15.955)의 개선을 보였다. 즉  $\chi^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했으므로 모형 II가 모형 I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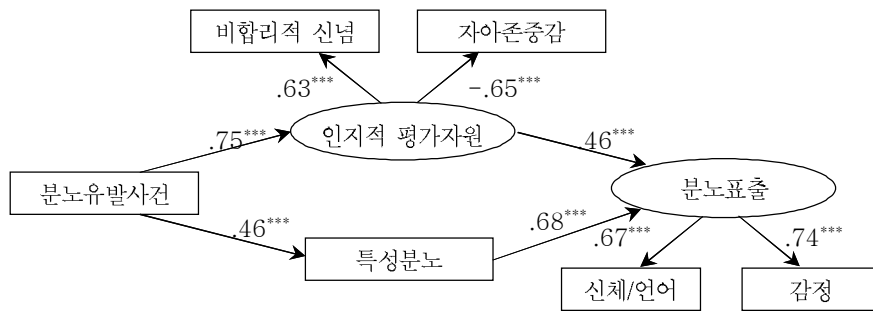


그림 5. 분노표출모형 I: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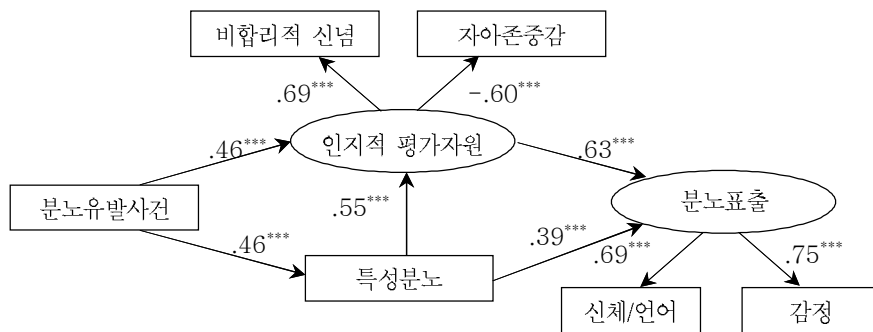


그림 6. 분노표출모형 II: 모형 I에 특성분노에서 인지적 평가자원으로 가는 직접경로를 더  
해준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표 3. 모형 I과 모형 II의 적합도 지수 비교

검증모형	DF	CMIN( $\chi^2$ )	CMIN/DF	$p$	CFI	NNFI	RMSEA
모형 I	7	115.631	16.519	.000	.888	.665	.188
모형 II	6	15.955	2.659	.014	.990	.964	.061

다. 그리고  $\chi^2$ 값이 비교적 낮고  $p$ 값이 .014로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유의미하며 CFI 값이 .990으로 좋은 모형의 기준을 판단하는 .9이상이고, NNFI 값이 .964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상이며, RMSEA 값이 .061로 .05~.08은 괜찮은 적합도이므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이었다.

표 4에서 모형 III은  $\chi^2$ 값이 비교적 낮고  $p$  값이 .022로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유의미하며 CFI 값이 .992으로 좋은 모형의 기준을 판단하는 .9이상이고, NNFI 값이 .965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상이며, RMSEA 값이 .061로 .05이

표 4. 모형 II와 모형 III의 적합도 지수 비교

검증모형	DF	CMIN( $\chi^2$ )	CMIN/DF	p	CFI	NNFI	RMSEA
모형 II	6	15.955	2.659	.014	.990	.964	.061
모형 III	5	13.114	2.623	.022	.992	.965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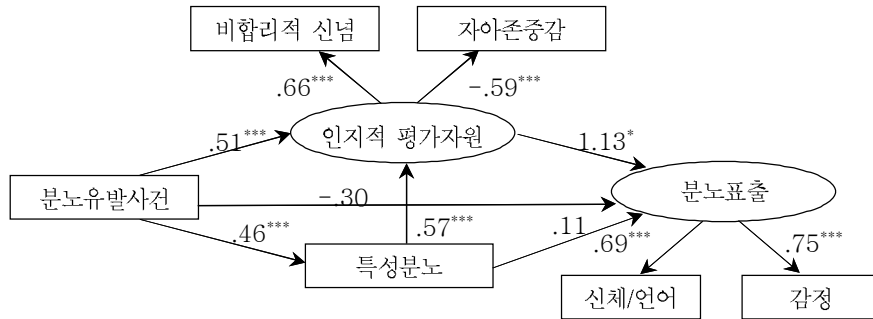


그림 7. 분노표출모형 III: 모형 II에 분노유발사건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직접경로를 더해준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상~.08미만은 괜찮은 적합도이므로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이었다. 그러나 분노유발사건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직접경로의  $p$ 값이 .304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고 특성분노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의  $p$ 값이 .742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나 모형의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 변인인 분노표출변인에서 음오차분산(-.263)이 발생한 것으로 헤이우드케이스(Heywoodcase) 때문이다. AMOS 분석결과 추정치가 음오차분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헤이우드케이스인 경우는 위반 변수를 제거하거나 분석에서 변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차분산을 .005이하의 값으로 고정시켜 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분노표출변인의 오차분산을 .005로 고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p$ 값이 .040으로 높아졌고 CFI는 .993, NNFI는 .974, RMSEA는 .052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높아졌으나 모형 II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차분산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였으므로 모형 II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모형 II와 비교하여 자유도가 1감소하였으나  $\chi^2$ 값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하지 못한 2.841(15.955-13.114)이다. 즉  $\chi^2$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 II가 모형 III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모형 IV는 모형 III에서 분노유발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분노표출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특성분노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아 이 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설정한 것이다. 표 5에서 모형 IV는 CFI

표 5. 모형 II와 모형 IV의 적합도 지수 비교

검증모형	DF	CMIN( $\chi^2$ )	CMIN/DF	<i>p</i>	CFI	NNFI	RMSEA
모형 II	6	15.955	2.659	.014	.990	.964	.061
모형 IV	7	30.249	4.321	.000	.976	.928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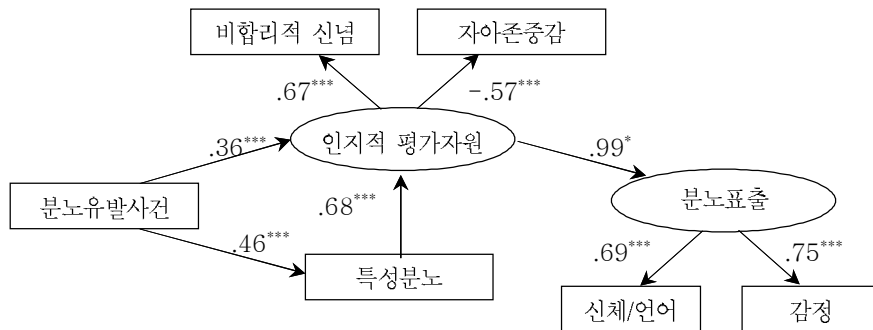


그림 8. 분노표출모형 IV: 모형 III에 분노유발사건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직접경로를 제외하고 특성분노에서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완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

값이 .976으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상이고, NNFI 값이 .928으로 좋은 모형의 기준인 .9이상이며, RMSEA 값이 .087로 .08이상~.10미만은 보통의 적합도이므로 적합도지수가 양호한 모형이었다. 그러나 모형 IV는 *p*값이 .000로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형 II에 비해 적합도 CFI, NNFI, RMSEA의 지수가 양호하지 못하였고 모형 II와 비교하여

자유도가 1증가하였으나  $\chi^2$ 값의 임계치인 3.84를 초과한 14.294(30.249-15.9954)이므로 모형 IV보다는 모형 II가 더 나은 설명력을 지닌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분노표출모형 II의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는 각

표 6. 분노표출모형 II의 직접경로

구조경로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오차)	C.R ( <i>t</i> 값)
분노유발사건→인지적 평가자원	0.510	0.058	8.748
인지적 평가자원→분노표출	0.097	0.015	6.288
분노유발사건→특성분노	0.140	0.013	10.745
특성분노→분노표출	0.215	0.047	4.592
특성분노→인지적 평가자원	1.988	0.196	10.119

매개변인(특성분노, 인지적 평가자원)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한지 평가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한다. 검증 결과 각각의 직접경로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와 경로의 유의미하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설명력 있는 분노표출 모형 II의 변인 간의 직접경로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매개변인(특성분노, 인지적 평가자원)과 다른 변인의 직접경로의 C.R.(t값)이 각각 1.96이상( $p < 0.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와 유의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Sobel 검정방식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이때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6).

$$Z_{ab} = a \cdot b / \sqrt{b^2 \cdot SE_a^2 + a^2 \cdot SE_b^2}$$

a : 경로 a의 비표준화 계수, b : 경로 b의 비표준화 계수, SQRT : 제곱근,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SE<sub>b</sub> : b의 표준오차

분노표출모형 II의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유발사건에서 인지적 평가자원을 매개로 분노표출로 나타나는 간접경로를 확인하였다. 이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검정한 결과,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5.21, p < .05$ ). 둘째, 분노유발사건에서 특성분노를 매개로 분노표출로 나타나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z=4.21, p < .05$ ). 셋째, 분노유발사건에서 특성분노를 매개로 인지적 평가자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분노유발사건에서 특성분노를 매개로 인지적 평가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7.38, p < .05$ ). 넷째, 특성분노에서 인지적 평가자원을 매개로 분노표출로 나타나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분노유발사건에서 특성분노를 매개로 인지적 평가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5.45, p < .05$ ).

그러므로 매개변인을 포함한 각 변인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분노표출모형 II를 초등학생의 분노표출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준다.

## 논 의

본 연구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분노표출에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로 분노표출모형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비교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들은 분노유발사건을 접할 때 특성분노와 인지

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작용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출 과정에서 분노유발사건의 경험 빈도가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특성분노가 직접적으로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분노유발사건, 특성분노,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분노표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표출은 특성분노,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성분노와 분노표출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어 기존 연구(이선명, 2005; 이은주, 2007; 채유경, 2001)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표출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Beck(2000)이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으며, 비합리적 신념은 분노 표출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채유경(2001)의 자아존중감과 분노표출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으나, 한향정(2008)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적 대처행동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전인자(2002)의 자아존중감과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 특성분노 변인이 분노표출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변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 분노표출에 특성분노, 분노유발사건,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았고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지지된 상관패턴을 고려할 때, 아동이 특

성분노의 경향이 높을수록, 분노유발사건을 자주 경험할수록,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지지된 상관패턴과 회귀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분노표출모형들을 설정하고 검증한 결과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이 매개작용하고 특성분노가 인지적 평가자원에 직접 영향을 미쳐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표출모형 II가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평가자원인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이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영인(1994)이 제시한 분노의 심리적 과정모형에서 개인의 인지 변인이 분노를 경험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같게 나타났고 Lazarus의 스트레스 이론에서도 인지평가의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비합리적 신념과 같은 자원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이론과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한다. 또한 서수균과 권석만(2005)이 분노유발사건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작용하여 일차적, 이차적 분노사고를 거쳐 역기능적 분노를 일으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한태희(2004)의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오류가 매개작용을 하여 밖으로 표출하려는 외현화 경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다. 그러므로 분노유발사건의 경험은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정적 영향,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높은 비합리적 신념과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부정적 인지적 평가자원은 초등학교생의 분노표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둘째, 모형 II는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가 매개작용을 하고 동시에 인지적 평가자원에 영향을 미쳐 분노표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초등학생이 분노유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특성분노를 활성화시키고 분노표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된 특성분노로 인해 부정적 인지적 평가자원인 높은 비합리적 신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활성화되어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셋째,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이 매개작용을 하지만, 분노유발사건 자체가 분노표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Lazarus가 스트레스사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변인(인격특질, 신념, 인지 등)이 그 사건을 지각하고 스트레스의 여부를 평가하고 대처행동을 한다는 이론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고 고영인(1994)이 제시한 분노의 심리적 과정에서 분노유발사건을 접할 때 비합리적 신념, 특정한 종류의 사고와 같은 개인의 인지체계가 분노표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같아 본 연구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을 분리시켜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 두 변인을 인지적 평가자원이라는 이론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작용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분노표출을 설명하기 위해 특성분노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노표출의 과정을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분노와 인지적 평가자원(비합

리적 신념,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통해 모형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즉 단일 매개변인보다는 여러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매개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었다.

분노표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닌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분노유발사건에서 분노표출로 인해 아동의 공격성이 더 심해지고 타인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필요하다. 즉 아동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분노유발사건에 대해 얼마나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분노유발사건을 평가하고 대처하는지, 분노유발사건을 대처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를 하고 대처하는지 등의 인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자원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상담활동이 필요하고 높은 비합리적 신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인지적 평가자원을 교정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분노유발사건과 분노표출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특성분노는 분노유발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특성분노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사건의 환경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의와 교육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차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고 저학년을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분노유발사건과 특성분노, 비합리적 신념, 자아존중감을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 회귀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이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을 찾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분노유발사건의 경험을 빈도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분노경험의 빈도 뿐 아니라 분노유발사건에 대한 내용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평가 자원이라는 이론변인에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의 관측변인을 토대로 연구하였는데, 세부적인 분노표출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변인과 다루지 않은 다양한 변인들을 각각의 이론변인으로 한 분노표출의 모형을 설정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명희 (1999). 초등학교 아동의 비합리적 신념이 우울 불안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종구 (1986). 자아개념, 진로의식 성숙 및 학업성취도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희 (2001). 특성분노, 분노 표현 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희경 (2005).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백영 (1997). 분노조절프로그램이 부정적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야자 (1990).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술: 수문사
- 김유신, 고영인 (1996).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와의 관계. *경성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4, 73-105.
- 김현경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07-122.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서수균, 권석만 (2005b).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 서수균, 권석만 (2005c). 분노조절 인지행동프로그램을 통한 이중인지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495-509.
- 서수균, 권석만 (2006). 내담자 집단의 분노와



- 우울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495-509.
- 서지영 (1996). 특성분노의 반응 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근석 (1991). *심리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이미경 (2006). 초등학생의 분노유발상황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적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교*, 4(1), 1-22.
- 이선명 (2005). 청소년의 단짝친구에 대한 분노 표현양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7).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인자 (2002). 고등학생의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양식에 따른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유경 (2001). 청소년 분노 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태희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1-21.
- 한태희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변인과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향정 (2008).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 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숍 자료집*.
- 홍세희 (2006).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성균관대학 BK21 문화역량사업단 강의 자료집.
- Anderson, E. (May 1994). The code of the streets. *Atlantic Monthly*, 273, 81-94.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Thwaites, G. A., Lynch, R. S., Baker, D. A., Stark, R. S., Thacker, S., & Eiswerth-Cox, L. (1996). *State-Trait anger theory and the utility of the trait anger scale*.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Lynch, R. S., & Morris, C. D. (1996). The expression of anger and its consequence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4, 575-590.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Ellis, A.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and Citadel Books.
- Feindler, E. L., & Ecton, R. B. (1986). *Adolescent*

- anger control*. New York: Pergamon Press.
- Garnefski, N., Kraaij, V.,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ylin, W. (1984). *The rage withi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Huesmann, L. R., Eron, L. D., Leftkowitz, M. M., & Wakl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24.
- Novaco, R. W. (1975). *Anger control: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experimental treatment*, Lexington, MA: Health.
- Novaco, R. W. (1986). Anger as a clinical and social problem. In R. J. Blanchard & D. C. Blanchard (Eds.), *Advances in the study of aggression*(pp.1-67). New York: Academic Press.
- Rosenberg, A.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1998). *Profession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amp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 Inc.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I.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5-30.
- 원고접수일 : 2008. 09. 29.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4.  
게재결정일 : 2008. 11. 20.

##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ger and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ger-Inducing Events and Anger-Out

Taek-sung Kim

Guksan Elementary School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ger and irrational belief and self-esteem as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ger-inducing events and anger-out. The correlations among various variable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es to influence directly or indirectly anger-out were selected to be performed of stepwise regression, and, from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several models were established to be verified for explaining anger-ou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10 fourth- to sixth-graders who were in two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Kyungsangnam Do, and they were surveyed by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anger-inducing events, trait anger, irrational belief, self-esteem, and anger-out. Among the subjects, 442 were analyzed as the data of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stepwise regression in order to identify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bles including anger-inducing events, trait anger, irrational belief, and self-esteem on anger-out, trait anger showed 50.0% in the explanatory power, followed by anger-inducing events (4%), irrational belief (2%), and self-esteem (1%). The whole explanatory power of the four variables was 55.7%. On the basis of this results, several models were produced and performed of comparing t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ducing events and anger-out when trait anger and irrational belief and self-esteem as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were establish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rait anger and cognitive appraisal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inducing events and anger-out were mediated to lead to anger-out. At the same time, a partial mediation model was revealed to be most appropriate in which the trait anger was assumed to directly affect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to lead to anger-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hildren respond to not anger-inducing events but the interpretation of such events or irrational belief and they may respon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personal trait anger or the level of self-esteem.

*Key words* : anger-inducing Events, anger-out, trait anger, cognitive appraisal resources, irrational belief, self-esteem